

인쇄인 박충일 회장
(법국민직지회 회장)



“문화의 원류는 인쇄문화이며, 인쇄문화의 종주국은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이하 직지>를 만든 대한민국입니다. <직지> 찾기는 인쇄문화 종주국으로서의 자존심을 되살리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직지>의 계승자를 자임하며, <직지>찾기 운동을 활발히 주도하고 법국민직지회 박충일(신흥인쇄소·71) 회장, 40년간 인쇄인으로 살아온 그는 현재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 회장으로 우리나라 인쇄산업계를 이끌고 있는 수장(首長)이다.

“1988년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에서 <개화기 연필자 도입이 언론에 미친 영향 연구>를 석사논문으로 제출했지만,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납 활자로 인쇄한 독립신문이 주제였는데, 훗날 <직지>의 존재를 알게 되고 제가 일본을 인쇄 종주국인 양 논문을 썼다는 생각에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직지>를 찾아 우리나라가 인쇄 종주국임을 만천하에 알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 원(願)을 품은 박 회장은 ‘청주 직지찾기운동본부’,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 등과 더불어 프랑스에 있는 ‘<직지> 반환운동’, 국내 어디가에 있을지 모르는 ‘<직지> 찾기 운동’을 벌였다. 각종 세계 인쇄기자재 전시회에서 <직지> 반환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고, 유네스코에는 <직지> 반환 요청 및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2001년에는 <직지>가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기에 이른다.

박 회장이 <직지>에 강한 애착을 갖게 된 것은 최고(最古)의 금속활자 ‘인쇄물’이라는 사실 말고도 한 가지 더 있다. 선(禪)의 요체를 담은 <직지>는 불서(佛書)라는 것, 신심 돈독한 불자인 그에게 <직지>는 인쇄물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박 회장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의 자리는 늘 ‘불교’와 ‘인쇄’가 만나는 그곳이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동국대 졸업 후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한 곳이 동국대학교 내 인쇄소였으며, 그곳에서 처음 발간한 책이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의 <불교학보 1집>(1963)이었다. 65년부터는 독립해서 차린 신흥인쇄소에서 <불교학보>를 인쇄, 40집까지 도맡아 제작했다. 동국대의 <고려대장경 영인본>, <석보상절 영인본> 등도 모두 박 회장의 손을 거쳤다.

60년대 초반 광덕 스님의 법문을 듣고 “그 말씀을 흘려보내지 아까워 스님께 책으로 만들어 배포하자고 제안”했다. 광덕 스님은 “한 권의 책은 법사와 같다”며 이를 받아들였는데, 이때 탄생한 것이 <불광>이다. 이후로 박 회장은 불광법회 회장을 맡아 8년간 신도회 조직화에 힘쓰는 등, 불광과의 인연을 넓혀갔다. 아내 양문정(71) 씨 또한 20여 년간 ‘명등보살’로 강남구의 신도조직을 이끌며 박 회장과 보조를 맞췄다.

“광덕 스님께서 법회 때마다 대중들과 함께 다짐한 ‘전법오서(傳法五誓)’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을 전하는 것이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서원인데, <불광>이야말로 저 같은 인쇄인이 할 수 있는 최적인 ‘전법’이었던 셈입니다.”

박 회장의 ‘전법’은 이것뿐이 아니다. 그는 1972년 언론 탄압정책으로부터 당시 유일한 불교계 신문이었던 <대한불교신문>을 지켜낸 장본인이기도 하다. 당시 정부는 인쇄시설을 갖추지 않은 신문사는 폐간하도록 해, 인쇄시설이 없던 <대한불교신문>이 폐간 위기에 처한 것. 이때 박 회장은 자신의 인쇄소의 간판을 ‘대한불교신문사 공무국’으로 바꿔달라고, <대한불교신문>은 폐간 위기를 넘겼다. 이로 인한 박 회장의 피해는 막심했다. “기독교 신자인 직원들은 새로 단 간판이 보기 싫다고 줄줄이 그

“佛書이기에 더 애착이 갑니다”
‘직지’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기여
40년 인쇄업... 문서포교 지원

만했고, 기독교 계통 거래처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정부관련 인쇄물 입찰 자격도 상실했지요.” 그런 어려움을 박 회장은 불심으로 이겨냈고, 신흥인쇄소는 다시 번창할 수 있었다.

지난 9월 4일, 서울 인쇄정보센터에서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 주최로 ‘직지 탄생일 선포식’이 열렸다. 현재 프랑스에 남아 있는 <직지>의 간기(間記)에는 ‘宣光七年丁巳七月 日’로, 날짜가 공란으로 돼 있어 제작일을 알 수 없음을 안타까워한 박 회장을 포함한 인쇄인들이 학계의 자문을 받아 당시 7월 백중에 해당하는 8월 19일을 <직지> 탄생일로 선포한 것이다.

“우리 인쇄문화의 발전을 주도한 것은 불교였습니다. 그 사실은 세계 최고(最古)의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 인쇄물인 <직지> 등이 말해줍니다.”

그러나 선조가 빛낸 인쇄 문화와 대비할 때, 오늘날 우리의 인쇄기술의 위상은 초라해 부끄럽다고 박 회장은 고백한다. 윤전기 생산 능력이 없어서 45억이나 하는 윤전기를 수입해야 하고, 인쇄 관련 수입액이 수출액을 초과하는 것이 현실이다.

“<직지>는 우리의 뿌리에 관한 문제요, 인쇄기술 발전은 우리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므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두 과제를 성취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직지>의 참된 계승자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박익순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직지 사랑

인쇄문화 종주국으로서 당연하죠”



세계가 격찬한 소리와 문양, 聖鐘社 梵鐘

본사는 옛날 신라인들이 名鐘을 제작하는 기법인 밀랍(蜜蠟)주조공법을 재현하는데 성공하여 그 예술적 미와 아름다운 소리를 후손에게 다시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세계에 우리나라 범종의 우수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본사는 지금까지는 불가능했던 신라범종의 섬세한 문양과 아름다운 소리를 재현함으로써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미국, 말레이시아 등 세계각국으로 수출, 그 예술적 가치와 명품의 소리를 국제적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이는 50여년간 범종의 문양과 소리의 연구에 매진하여 범종계에서는 최초로 대한민국 명장과 인간문화재로 지정 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장인정신으로 더욱정진하여 이시대에 걸작품의 범종을 주종하는데 매진 하겠습니다.

2004. 5.
성종사 대표 원광식 합장

성종사 보유 신기술

- 밀랍주조공법 범종의 표면에 기포없이 깨끗하고 정교한 문양으로 주조하는 공법
- 음향조율기술 최첨단 음향측정장치로 음향을 분석, 음의 질과 양을 조절하는 기술
- 특수 열처리공법 금속 조직을 균일화시켜 질감있는 소리, 부드럽고 은은하게 하는 공법
- 특수 착색 공법 범종의 착색에 갈색, 구리색, 녹색, 금색 등 아름다운 색상을 재현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 02-733-6141 / FAX : 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 043-536-2581 / FAX : 536-2582

● 홈페이지 : www.sungjongsong.co.kr E-MAIL : sungjongsong@hotmail.com

△성종사는 충북진천군 덕산면 합목리에 부지 6,000평 넓이 530평 높이 13m 공정을 완공하여 최대2만평 규모의 종을 제작할수 있는 국내 최대의 제종소를 가동중입니다.



△정통양식의 문양은 경교하면서 깨끗한 표면으로 주조되었다(나) 밀랍주조공법으로 재현한 아름다운 비현상(下)